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21, Vol. 18, No. 1, 99-119
http://dx.doi.org/10.16983/kjsp.2021.18.1.99

중학생의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의 잠재 프로파일 분류: 성별,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차이 분석

남 숙 경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최 현 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본 연구는 중학생의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으로 구성되는 잠재프로파일을 규명하고 이러한 프로파일에 따라 성별, 자아탄력성(자아탄력 및 자아취약),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남 지역 중학생 3학년 27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의 잠재프로파일은 4개의 집단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이 모두 낮은 '적응 집단', 외톨이 성향은 낮으나 학업소진은 높은 '소진 집단', 외톨이 성향은 높으나 학업소진은 낮은 '외톨이 집단',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이 모두 높은 '외톨이-소진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4개 집단에 대해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톨이-소진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낮은 자아탄력, 높은 자아취약, 낮은 학교적응 수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학생 상담에 대한 시사점이 논의되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주요어 : 외톨이 성향, 학업소진,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 분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현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44601)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Tel: 052-259-2408, E-mail: serenhj@ulsan.ac.kr

www.kci.go.kr

청소년들은 친구의 우정을 통해 협동성과 상호존중, 대인관계 감각을 발달시키게 되며, 이런 능력은 이후 다른 사회적 관계들에 확장,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친구가 없는 청소년들은 무능감, 낮은 자존감, 우울 등 많은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명숙, 송행숙, 2011). 하지만, 이와 같이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 및 경험이 청소년기의 중요 발달 과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핵가족 및 가족의 고립화, 부모의 과잉보호 현상, 학업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압력,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인한 한국 사회적 환경 속의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학교는 내재적 혹은 외현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공간이 되었으며 다양한 통신매체 발달로 확산된 인터넷 및 사이버 공간들로 친구가 없는 외톨이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김은정, 2001; 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 2001). 명백하게 따돌림을 받는 집단의 경우와는 달리, 이와 같은 외톨이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거부가 지속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나(이시형, 김은정, 김미영, 김진영 2000), 또래집단에 들어가더라도 조용하고 특정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종종 무시당하는 경우를 보이며 또래 집단에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하고 꺼리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영, 김광웅 2008). 특히 이들은 초기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관계에 대한 친밀감의 실패로 더욱 외로움을 경험하며(이명선, 2011), 자기 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능하다고 여기며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낮고 더 우울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2001; 유정이, 임지영, 2003). 이에 외톨이 수준 및 경험을 낮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개입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한국 청소년들은 과열된 입시 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문경숙, 2006).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대처에 실패하게 되면 소진을 유발하게 된다(신효정, 김보영, 이민영, 노현경, 김근화, 이상민, 2011). 소진(burnout)이라는 개념은 일과 관련하여 지치고 힘든 상태를 의미하며 인간서비스 계통의 직업군에서 쓰이기 시작(Freudenberger, 1974) 하였으며 이후 다른 종류의 직업적 환경으로 확산되었다. 학생인 청소년들의 경우, 고용되거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는 않지만, 수업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구조화된 과제를 완수하며 시험을 통한 평가를 받아야 하기에, 학업은 하나의 직무로 간주된다(Meier & Schmeck, 1985). 따라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하면 그로 인해 소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학업소진은 만성적 학업스트레스와 과도한 학업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된 결과로, 정서적 자원의 고갈, 학업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무능감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동반한다(김민애, 이상민, 신효정, 박양민, 이자영, 2010; Schaufeli, Martinez, Marques-Pinto, Salanora, & Baker, 2002). 이에 학업소진된 학생들은 학업 수행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과 같은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학업소진은 주관적 웰빙 및 삶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학교 적응 혹은 자살생각 등의 이차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학업소진을 낮출 수 있는 개입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www.kci.go.kr

한편,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이지만, 최근 국외 연구들의 결과들은 이러한 학업소진이 외톨이 청소년들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톨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주요 감정인 외로움은 신체적 건강 및 우울과도 관련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외로움이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Benner, 2011; Stoliker & Lafreniere, 2015) 보여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의 외로움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능력이 떨어지고, 학업 성적이 저조하며, 독해력과 수학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nner, 2011). 이러한 결과는 외로움이 학업능력 및 학업성취에 있어 또 다른 중요 변인인 학업소진과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로움과 학업소진의 관계를 알아보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 변인들을 처음으로 함께 본 Lin과 Huang(2012)의 연구는 외로움과 학업소진과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다른 학생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외로움을 많은 느끼는 학생들 경우, 학업소진 수준도 더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달리 외로움과 학업소진을 함께 본 또 다른 연구(Stoliker & Lafreniere, 2015)에서 학업소진과 달리 외로움은 학업 영역 중 학업 성취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odeen과 Hassan (2019)의 연구에서도 외로움은 남녀 모두 학업성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외로움과 학업소진이 관련되어 있고, 역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학생들의 문제 영역에 있어 두 변인의 영향과 양상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로움은 청소년들의 경험하는 관계적인 영역에서, 학업소진은 학업영역에서의 문제들과 관련될 수 있으며, 두 변인들 수준을 중심으로 좀 더 다양한 조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두 변수 수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의 가능성과 함께, 외톨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주요 감정인 외로움과 학업소진은 모두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저해하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흔한 문제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Stoliker & Lafreniere, 2015) 두 변인을 함께 본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무엇보다 두 변인 수준들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즉, 두 변인을 중심으로 문제 영역별 집단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경험의 긍정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두 변인 수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변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구성 조합들을 규명하는 과업은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가능한데, 이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집단 내 이질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중심(person-centred) 접근이다. von Eye과 Bergman (2003)에 따르면, 이 분석 방법은 변인-중심 접근으로는 알아내기 어려운 소수 집단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위기 대상을 발견하고 이들을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으로 구성된 잠재프로파일을 규명함으로써 두 변인의 수준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양상을 살펴보고, 집단들의 특성을 인구배경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알아보고자

www.kci.go.kr

한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인구배경학적 변인으로는 성별이, 심리적 변인으로는 자아탄력성(자아탄력 및 자아취약)과 학교적응이 해당 변인으로 선정되었다.

우선, 외톨이 성향과 성별에 대해 살펴보면 여학생은 비외톨이 집단보다 외톨이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윤명숙, 송행숙, 2011). 그러나 외톨이 성향의 주요 정서라 할 수 있는 외로움의 정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Al Khatib, 2012; Thomopoulou, Thomopoulou, Koutsouki, 2010)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성이 더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Batigun, 2005; Knox, Vail-Smith, & Zusman, 2007)들이 있었다. 또한 Mahon과 그의 동료들의 메타 연구(2006)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학업소진 차이 역시 연구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남성의 학업소진 정도가 여성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들(Ling & Huang, 2012; Wiseman et al., 2006)과 여성의 학업소진이 더 높다는 연구(Kiuru, Aunola, Nurmi, Leskinen, & Salmela-Aro, 2008)가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어느 성별에서 더 높은 외톨이 성향 혹은 학업소진을 보이는지는 연구마다 상이하기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외톨이 성향 및 학업소진과 관련을 갖는 변인으로 심리적 변인인 자아탄력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탄력성이란 내, 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일종의 성격유형으로(Block & Block, 1980), 외톨이 성향과 같은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 적응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영혜, 2009; 채수연, 송영혜, 2004; 허지연, 2004). California Child Q-Set(CCQ; Block & Block, 1980a)를 국내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구형모와 황순택(2001)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은 자아탄력과 자아취약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자아탄력이란 자아탄력성이 높고 적절한 수준의 자아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하며, 자아취약(ego brittle)은 자아탄력성이 낮은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자아통제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지나치게 약한 특성이 모두 포함된다. 자아탄력성과 외톨이 성향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외톨이 성향과 자존감, 자존감과 탄력성 간 관계를 바탕으로 외톨이 성향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비외톨이 집단보다 자존감이 낮은 외톨이 성향의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여 불안한 성격과 심리상태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므로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순복, 2010; 최외선, 자영숙, 2000). 자존감, 자기개념 등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자아탄력성과 관계가 깊다는 연구(Lee, Nam, Kim, Kim, Lee, & Lee, 2013)를 고려해 볼 때, 자아탄력성 역시 외톨이 성향 수준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아탄력성은 학업소진과도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데(박시연, 2016; 조주연, 김명소, 2013), 청소년의 학업소진에 대한 국내 메타연구(서미옥, 2018)에서 자아탄력성과 학업소진은 부적 관

www.kci.go.kr

계를 보였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예측하지 못한 일에 부딪혔을 때 불안을 다스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힘을 지니므로, 학업소진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정선아, 이고운,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의 잠재프로파일이 자아탄력성 및 자아취약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이 외톨이 성향 및 학업소진과 갖는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톨이 경험은 학업부진, 장기적인 학습장애, 등교거부, 왕따, 폭력 등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의 경험으로도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학교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2011). 또래로부터의 소외감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우는 사회적 기술과는 다른 또래관계에서 습득하는 사회적 기술을 확장시킬 기회를 박탈하기에,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 이를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찾기 어렵고 심리적 부적응, 문제행동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박가화, 이지민, 2018).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 가장 높은 것이 학업 관련 스트레스(모상현, 김형주, 2014)이며, 학업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만성화되어 학업소진으로 이어질 경우 학교생활만족도와 행복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기에(김정현, 마연연, 고민선, 2013; 김홍희, 한기순, 2015; 이상민, 2012; 최옥, 이우송, 2014), 외톨이 수준 성향 및 학업소진 수준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들이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이어주는 중간 단계인 중학교 시기는 부모나 가족보다는 또래관계에 본격적으로 몰두하여,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또래와 보내고 그들의 평판에 민감해지며, 또래집단의 규범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최창용, 이주연, 신유미, 2015). 이러한 중학생들에게 또래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선호도나 인기도는 자신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며, 무리 안에 소속되지 못하는 것은 심리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정옥신, 이재용, 2017). 또한,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교과마다 담당 선생님이 바뀌고, 학습량과 난이도가 크게 증가하기에 중학생들에게 있어 '중학생이 됨'이란 삶의 균형이 깨지고 '공부'가 압도하는 시기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보고되고(김경애 등, 2017)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과중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학업소진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학생 시기는 발달적 변화과정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이때부터 가시화된 학교적응 문제가 이후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최옥, 이우송, 2014; Simon-Morton & Crump, 2003),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중요 영역인 관계 영역과 학업 영역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개입들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들이 경험하는 관계 문제 영역과 학업 문제 영역을 외톨이 성향 수준과 학업소진 수준을 통해 알아보고 이 문제 수준에 따른 다양한 집단들의 분류를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외로움과 학업소진을 낮출 수 있는 개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집단별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성별, 자아탄력성(자아

www.kci.go.kr

탄력 및 자아취약), 학교적응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 수준에 따라 어떠한 잠재프로파일들이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외톨이 성향 및 학업소진의 잠재프로파일 집단은 성별, 자아탄력성(자아탄력 및 자아취약), 학교적응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경남 지역 5개 학교의 중학생 3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여 진행되었다. 2018년 9월~12월에 설문조사 협조를 구하였고, 학교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284명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한국심리학회 연구윤리 규정(한국심리학회, 2016. 12.)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자에게는 연구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방침이 안내되었다. 모든 참여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되었으며, 중도에 연구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았다.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 14명을 제외하고, 27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자료에서 남학생은 129명(47.8%), 여학생은 141명(52.2%)으로 성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연구도구

외톨이 성향

외톨이 성향은 이시형, 김은정, 김미영, 김진영, 이규미, 구자경(2000)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외톨이 질문지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소외와 외로움 7개 문항(예: 학교에서 혼자라고 느낀다), 사회적 유능감 6문항(예: 나는 친구가 많다), 친구교류부재 3문항(예: 친구집에 놀러가는 일이 없다)의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유능감 요인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성향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점수화하였다. 이시형 등(2000)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소외와 외로움이 .90, 사회적 유능감은 .85, 친구교류부재는 .74로 나타났다.

학업소진

학업소진은 한국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이영복, 이상민, 이자영(2009)의 학업소진 척도를 수정, 보완한 김민애, 이상민, 신효정, 박양민, 이자영(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민애 등(2010)은 탈진, 냉담, 무능감, 반감, 불안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된 이영복 등(2009)의 학업소진 척도 중 불안 하위요인을 제외하는 것이 측정학적으로 양호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김민애 등(2010)의 견해에 따라, 탈진(예: 나는 공부 때문에 심정적으로 고갈된 느낌이다), 냉담(예: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중요한지 의심스럽다), 무능감(예: 나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된다), 반감(예: 나는 공부밖에 없는 세상이 싫다)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학업소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은 5개 문항의 Likert 5

www.kci.go.kr

점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 전체의 내적합치도는 김민애 등(2010)의 연구에서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는 탈진 .90, 냉담 .90, 무능감 .92, 반감 .94였다.

자아탄력성(자아탄력 및 자아취약)

자아탄력성은 구형모, 황순택(2001)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척도(CCQ) 척도 중에서 자아탄력성 요인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요인은 자아탄력 18문항과 자아취약(예: 놀림이나 비난을 받으면 쉽게 상처를 입는다) 15문항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인 문제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예: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바로 회복하거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다). 반면 자아취약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이 부족하여 바로 포기하고 물러서는 등 적응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자신에 대해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는 경향성이 커짐을 나타낸다. 응답은 Likert 9점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이 높거나, 자아취약이 높음을 의미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승희(2013)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의 내적합치도는 .89, 자아취약의 내적합치도는 .80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이 .92, 자아취약이 .85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이규미(2005)의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공부(예: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8문항, 학교친구(예: 학교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10문항, 학교교사(예: 나는 선생님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10문항, 학교생활(예: 나는 학교생활이 즐겁고 유쾌하다) 10문항의 총 3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이규미(200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0으로 높은 편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94로 높게 산출되었다.

자료분석

자료의 대략적인 분포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5 프로그램으로 상관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했다. 연구문제 1을 위해 *M*plus 8 프로그램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했다. 외톨이 성향은 4점 척도, 학업소진은 5점 척도로 두 변인이 서로 다른 점수 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변인을 Z점수로 변환하여 LPA 분석에 사용했다. 최적의 잠재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량적 측면에서 정보적합도 지수, 통계적 유의도, 분류의 질을 검토했고, 정성적 측면에서는 간결성의 원칙(rule of parsimony)에 따라 각 프로파일의 비율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했다(McCrae, Champman, & Christ, 2006). 정보적합도 지수로는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87),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 SSABIC(Sample-Size Adjusted 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clove, 1987)를 포함시켰다. 이들은 모두 값이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임을 뜻한다(Muthén & Muthén, 2006). 통계적 유의도로는 LRT(Likelihood Ratio Test, or LMR: Lo, Mendel, & Robin, 2001)와

www.kci.go.kr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McLachlan & Peel, 2000)를 사용했다. 이들은 잠재프로파일의 개수가 *k*개인 모형(H_1)과 *k-1*개인 모형(H_0)의 로그최대우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 *p*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k-1*개보다 *k*개의 잠재계층 모형이 적합함을 뜻한다. 분류의 질은 전반적 분류정확도인 Entropy를 확인했다.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임을 뜻한다(Muthén, 2004). 정성적 측면에서 하위 집단을 효율적으로 대표하는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프로파일 별 개체 소속비율과 프로파일 모양을 확인했다. 5% 미만 집단이 포함되거나 새로운 형태의 프로파일이 발견되지 않는 모형은 간결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했다(Lubke & Neale, 2006). 연구문제 2를 위해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를 통해 변인들의 전반적인 관계와 특성을 알아보았다(표 1). 상관분석 결과,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 간에는 약한 정적 상관(r=.18, p<.01)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톨이 성향은 자아탄력과는 부적 상관(r=-.42, p<.001)을, 자아취약과는 정적 상관(r=.36, p<.001)을 지녔다. 학교적응과는 부적 상관(r=-.41, p<.001)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학업소진과 자아탄력은 부적 상관(r=-.27, p<.001), 학업소진과 자아취약은 정적 상관(r=.32, p<.001)을 지녔고, 학교적응과는 부적 상관(r=-.43, p<.001)을 보였다. 한편, 자아탄력성과 자아취약성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10, *n.s*).

표 1. 주요변인 상관 및 기술통계

	외톨이 성향	학업소진	자아탄력	자아취약	학교적응
학업소진	.18**	-			
자아탄력	-.42***	-.27***	-		
자아취약	.36***	.32***	-.10	-	
학교적응	-.41***	-.43***	.59***	-.18**	-
평균	1.75	2.57	5.65	4.21	2.88
중앙값	1.69	2.50	5.50	4.20	2.87
표준편차	0.46	0.81	1.27	1.19	0.39
최솟값	1.00	1.00	2.11	1.00	1.92
최댓값	3.31	4.70	9.00	9.00	4.00
왜도	0.70	0.36	0.36	0.15	0.31
첨도	0.20	-0.19	0.27	1.07	0.85

** $p < .01$, *** $p < .001$

www.kci.go.kr

기술통계 결과에서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은 모두 중앙값(median)이 평균(mean)보다 작고 왜도가 0보다 크게 산출되었다. 이는 자료들이 다소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톨이 성향의 평균은 1.75점(4점 척도, 1.00점~3.31점), 중앙값은 1.69점, 표준편차는 0.46점이었다. 학업소진는 평균 2.57점(0.81, 5점 척도, 1.00점~4.70점), 중앙값 2.50점, 표준편차 0.81점이었다. 자아탄력의 경우 평균 5.65점(9점 척도, 2.11점~9.00점), 중앙값 5.50점, 표준편차 1.27점이었다. 자아취약은 평균 4.21점(9점 척도, 1.00점~9.00점), 중앙값 4.20점, 표준편차 1.19점이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은 평균 2.88점(5점 척도, 1.92점~4.00점) 중앙값 2.87점, 표준편차 0.39점이었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으로 구성된 하위집단을 규명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했다.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프로파일 수 k를 2개에서 6개까지 증가시키면서 총 5개의 모형을 분석했다(표 2). 우선 정량적 측면에서 5개 모형을 살펴보면, 정보적합도 지수는 k=2~4로 증가하면서 감소하다가 k=5가 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AIC는 k=5인 모형이, BIC와 SSABIC는 k=4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도(LMR, BLRT)는 k=2와 k=3에서 유의했고, k=4일 때 LMR은 유의했으나, BLRT는 유의하지 않았다. k=5와 k=6는 LMR과 BRTL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분류의 질인 Entropy는 k=2일 때 0.74로 가장 높았고, k=3과 k=4일 때 0.73으로 다소 감소했다. k=5일

표 2.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적합도 비교

분류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k)				
		2	3	4	5	6
정보적합도 지수	AIC	1508.45	1504.77	1503.78	1503.64	1505.25
	BIC	1563.64	1550.75	1550.56	1561.21	1573.62
	SSABIC	1520.44	1510.05	1509.34	1510.48	1513.38
통계적 유의도	LMR	p<.01	p<.05	p<.05	p>.05	p>.05
	BLRT	p<.001	p<.05	p>.05	p>.05	p>.05
분류의 질	Entropy	0.74	0.73	0.73	0.68	0.71
개체 소속 비율(%)	1	78.5	11.8	72.2	48.5	4.1
	2	21.5	84.8	5.9	25.9	2.6
	3		13.4	10.8	12.2	11.5
	4			11.1	4.1	38.9
	5				9.3	9.2
	6					33.7

www.kci.go.kr

때 0.68로 가장 낮았으며 k=6일 때 다시 0.71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정량적 측면의 지수들은 서로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최적의 모형은 k=4 혹은 k=5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간명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살펴봤을 때, k=5 모형은 한 집단의 개체 소속 비율이 4.1%에 머물렀고 새로운 형태의 프로파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k=5 모형이 효율적으로 하위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에 최종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4개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k=4 모형은 가장 적합한 프로파일에 해당할 확률(average latent class probability for most likely latent class membership by latent class)에서 대각선의 값이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분류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Pastor, Barron, Miller & Davis, 2007).

최종 결정된 4개 집단의 외톨이 성향 및 학업소진의 추정평균 패턴을 고려하여 명칭을 부여했다(표 3). 첫 번째 집단은 192명(7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들은 학교생활의 주된 활동인 대인관계 및 학업에 모두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어 '적응 집단(well-functioning group)'으로 명명했다. 두 번째 집단은 16명(5.9%)으로 가장 낮은 비율이었고 외톨이 성향 평균은 낮으나 학업소진에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들은 대인관계보다는 학업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함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소진 집단(burnout group)'으로 명명했다. 세 번째 집단은 29명(10.8%)이었고, 4개 집단 중 외톨이 성향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학업소진은 비교적 낮았다. 이 집단은 대인관계에서 소외와 외로움을 느끼며, 사회적 유능감이 낮고, 친구들과 교류도 부족하나 학업에 있어 지치고 힘든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외톨이 집단(lonely group)'으로 명명했다. 네 번째 집단의 경우, 외톨이 성향은 다소 높은 평균을, 학업소진은 4개 집단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 집단은 대인관계에서 소외와 외로움을 느낄 뿐 아니라 학업에서도 피로감, 무력감, 반감 등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외톨이-소진 집단(lonely-burnout group)'으로 명명했다. 각 프로파일의 형태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네 집단의 외로움 성향 및 학업소진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4개 집단은 외톨이 성향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R3, 266)=141.20, p<.001. 사후분석 결과(*Scheffé*)에 따르면 외톨이 집단의 평균

표 3. 프로파일 별 외톨이 성향 및 학업소진의 추정평균 및 표준오차

프로파일	인원 (%)	외톨이 성향		학업소진	
		추정평균	표준오차	추정평균	표준오차
적응 집단 (well-functioning group)	195 (72.2%)	-0.39	0.07	-0.36	0.10
소진 집단 (burnout group)	16 (5.9%)	-0.51	0.31	1.26	0.48
외톨이 집단 (lonely group)	29 (10.8%)	1.66	0.25	-0.14	0.16
외톨이-소진 집단 (lonely burnout group)	30 (11.1%)	0.89	0.23	1.35	0.26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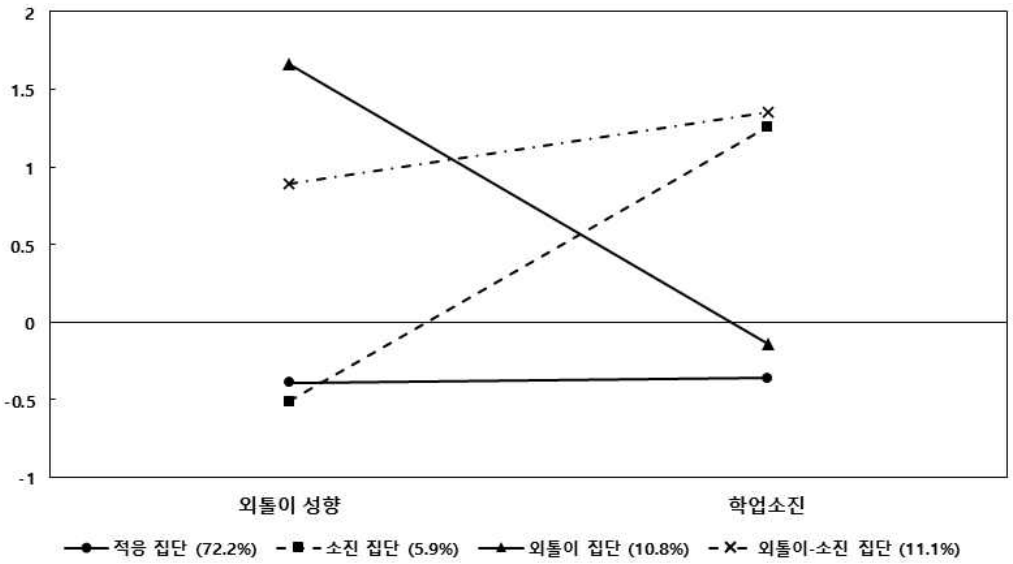

그림 1. 외톨이 성향 및 학업소진의 잠재 프로파일

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외톨이-소진 집단이었다. 적응 집단과 소진 집단은 앞선 두 집단에 비해 낮은 평균을 보였다. 그러나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학업소진 역시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었다, $R(3, 266)=98.01$, $p<.001$. 외톨이-소진 집단과 소진 집단은 적응 집단과 외톨이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평균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톨이-소진 집단과 소진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적응 집단과 외톨이 집단 간에도 학업소진에 있어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프로파일에 따른 성별, 자아탄력, 자아취약, 학교적응의 차이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해 LPA 결과 도출된 4개 집단이 성별, 자아탄력, 자아취약, 학교적응에 있어 통계적인 차이를 지니는지 분석해 보았다.

우선,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남학생 집단에서는 적응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외톨이-소진 집단, 외톨이 집단, 소진 집단의 순서였다. 여학생 집단의 경우 적응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외톨이 집단, 외톨

표 4. 프로파일 별 성별 차이

구 분	적응 집단 (n=195)	소진 집단 (n=16)	외톨이 집단 (n=29)	외톨이-소진 집단 (n=30)	χ^2 (p)
남학생 (n=129)	100 (77.5%)	5 (3.9%)	10 (10.9%)	14 (10.9%)	4.78
여학생 (n=141)	95 (67.4%)	11 (7.8%)	19 (13.5%)	16 (11.3%)	(.189)

www.kci.go.kr

이-소진 집단, 소진 집단의 순서였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4개 집단의 비율이 다소 상이하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chi^2(1, N = 270) = 4.78$, $p>.05$.

자아탄력, 자아취약, 학교적응에서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했다(표 5). 우선 자아탄력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F(3, 266) = 7.76$, $p<.001$. *Scheffe* 사후분석 결과, 적응 집단의 평균(M=5.67, SD=1.29)은 다른 집단과의 비교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소진 집단(M=5.36, SD=1.11), 외톨이-소진 집단(M=5.08, SD=1.00), 외톨이 집단(M=4.93, SD=1.11) 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자아취약 역시 일원분산분석 결과에서 차이가 검증되었다, $F(3, 266) = 11.67$, $p<.001$. 자아취약의 경우, 외톨이-소진 집단의 평균(M=4.95, SD=1.2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소진 집단(M=4.81, SD=0.86)과 외톨이 집단(M=4.80, SD=1.08)이었다. 적응 집단의 평균(M=3.96, SD=1.14)은 4개 집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에서도 4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F(3, 266) = 14.02$, $p<.001$.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적응 집단의 평균(M=2.97, SD=0.36)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소진 집단(M=2.76, SD=0.35)과 외톨이 집단(M=2.71, SD=0.43)이었다. 외톨이-소진 집단은 4개 집단 중 가장 낮은 학교적응 평균(M=2.56, SD=0.35)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집단을 나누어보고, 이들의 성별,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으로 구성되는 잠재프로파일을 확인하고, 분류된 프로파일에 따른 특성(성별, 자아탄력, 자아취약, 학교적응)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4개의 잠재프로파일이 도출되었다. 잠재프로파일 1은 총 192명(72%)이 해당되었으며, 외톨이 성향과 학

표 5. 프로파일 별 자아탄력, 자아취약,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구 분	적응 집단 (n=195)		소진 집단 (n=16)		외톨이 집단 (n=29)		외톨이-소진 집단 (n=30)		F (사후분석)
	M	SD	M	SD	M	SD	M	SD	
자아탄력	5.67	1.29	5.36	1.11	4.93	1.11	5.08	1.00	7.76^{***} (a>b,c,d)
자아취약	3.96	1.14	4.81	0.86	4.80	1.08	4.95	1.24	11.67^{***} (d>b,c>a)
학교적응	2.97	0.36	2.76	0.35	2.71	0.43	2.56	0.35	14.02^{***} (a>b,c>d)

*** $p<.001$. a: 적응집단. b: 소진집단. c: 외톨이 집단. d: 외톨이-소진 집단.

www.kci.go.kr

업소진이 모두 낮은 수준을 보여 적응 집단(well-functioning)으로 명명했다. 이 집단은 대인관계 및 학업에 있어 모두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잠재프로파일 2는 가장 낮은 비율인 총 16명(5.9%)이 해당되었으며, 외톨이 성향 평균은 낮으나 학업소진에서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어, 소진집단(burnout group)으로 명명했다. 이들은 대인관계로 인한 외로움보다 학업으로 인한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잠재프로파일 3은 총 29명(10.8%)이 해당되었으며, 4개 집단 중 외톨이 평균은 가장 높고 학업소진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외톨이 집단(lonely group)으로 명명했다. 이 집단은 학업으로 인한 소진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또래들과의 교류 수준이 낮고 사회적 유능감이 낮으며 대인관계 영역에서 소외와 외로움의 정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잠재프로파일 4는 총 30명(11.1%)으로 외톨이 성향 수준도 다소 높고, 4개의 집단 중 학업소진 수준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톨이-소진 집단(lonely burnout group)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대인관계 영역에서 어려움으로 인해 외로움과 소외감의 정서 경험 수준이 높고 학업 영역에서도 주어진 학업에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하고 무기력을 느끼거나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상의 네 집단의 분포를 중심으로 결과를 보면, 우선 적응집단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스트레스에 적응적으로 대처하여 건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추론케 한다. 한편 소진집단과 외톨이 집단의 경우 심리적 자원이나 학교 적응에 있어 비슷한 수준을 가질 수 있으나,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 학업과 관계 영역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진(약 6%) 집단보다 높은 외톨이 집단(약 11%)의 비율을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이 학업 소진 보다는 외톨이 성향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톨이-소진 집단은 약 11%로 관계와 학업의 두 영역에서 모두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소진 집단보다도 많은 중학생들이 외톨이-소진 집단에 속했는데, 이는 학업 소진을 단독으로 경험하기보다는 교우 관계 및 학업 소진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을 뜻한다.

둘째, 잠재프로파일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소진 집단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톨이 집단 역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톨이-소진 집단은 남녀 비율이 거의 유사했다. 이 집단은 관계영역과 학업영역에서 모두 어려움을 경험하는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관계영역과 학업 영역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학교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자아탄력성(자아탄력 및 자아취약)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우선 자아탄력의 경우, 적응 집단의 평균이 다른 집단들보다 높으며, 나머지 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적응 집단의 경우를 제외한 소진, 외톨이, 외톨이-소진 집단에서는 자아탄력 수준이 유사했음을 뜻한다. 대조적으

www.kci.go.kr

로 자아취약의 경우, 외톨이-소진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소진 집단 및 외톨이 집단, 마지막으로 적응 집단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소진 집단과 외톨이 집단은 어려움을 보이는 문제 영역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자아취약과 같은 심리적 취약성 요인에 있어서는 비슷한 수준을 지녔음을 반영한다. 관계와 학업 영역에서 모두 어려움을 보이는 외로움-소진 집단의 경우 가장 자아취약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자아탄력성이 높은 중학생은 외로움과 학업소진에 있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문제 영역이 달라도 관계 영역과 학업 영역에 모두에 있어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개입방안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넷째,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적응 집단의 학교적응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소진 집단과 외톨이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네 집단 중 외톨이-소진 집단이 가장 낮은 학교 적응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적응에 있어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 수준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래집단에서의 낮은 수용 경험이 외로움의 수준을 높이며, 대인관계 문제 해결 기술에 중요한 사회적 유능감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우울, 무력감, 낮은 자존감 등으로 이어지며 학교적응에까지 저해가 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업스트레스가 만성화되어 학업소진으로 이어질 경우 역시 학교생활에 대한 어려움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외톨이-소진 집단의 학교적응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구가 없이 혼자 지내는 외톨이 성향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학업소진 등과 같이 학업에서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 적응상 문제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있어 대인관계와 학업 모두 중요한 영역임을 시사하며, 이 영역들 모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학교적응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는 외톨이 성향 수준과 학업소진 수준으로 구성된 집단들(적응, 소진, 외로움, 외로움-소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각 집단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학교 현장 및 상담 장면에서의 개입 방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톨이 집단의 경우 위축된 행동이 아동기 중기까지 계속될 경우 심각한 적응 문제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Berndt & Keefe, 1995)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외톨이 성향의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경험하는 외로움 등의 부정적 정서들을 회피하고자 스마트폰 등을 사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사회연결성을 통한 애정 소속 욕구들을 충족시키며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기조절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더욱 스마트폰이나 SNS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외로움으로 인한 관계적 영역의 문제가 학업 이외에 어떻게 내현화 그리고 외현화 문제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에 따른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외톨이의 경험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기술의 결손은 적절한 정서 표현을 제한하고 타인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여 이후

www.kci.go.kr

초기 성인기에도 새로운 관계 내에서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외로움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훈련 및 프로그램들이 학교 현장과 상담 현장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감과 긴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또래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들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서적인 문제를 넘어 의사소통방법 훈련 등을 통해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사와 상담자는 청소년들이 또래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표현함에 적극적으로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감 경험을 통해 또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며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 2001). 특히 개인주의적 문화 속에서 성장한 서양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집단주의 문화가 우세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집단에서의 외톨이 경험은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에(손정우, 2002)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소진 집단의 경우, 학업소진이 긴 시간을 두고 발달하는 현상임을 고려하여(이상민, 2012), 예방차원에 초점을 둔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학업소진 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미리 인식하여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서적 불편감(고통)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비판단적 또는 수용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마음챙김 등의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들(정문정, 이상민, 최현주, 2016)이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학업소진에도 관련이 높기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귀인양식 및 인지도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습 상황은 자기효능감의 중요한 판단의 단서가 되기(유지현, 2013)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둔 피드백, 상호작용 및 비교과 활동들을 확대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외로움-소진 집단의 경우, 무엇보다 외톨이 성향의 수준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자아존중감이 현저히 낮고,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질 수 있기에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존감은 학업소진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기에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급단위, 그리고 개인을 중심으로 한 활동 및 상담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경험하는 심리적인 부정적 정서와 어려움은 학습 동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송병국 등, 2016). 그런데 이러한 학습 동기가 역시 학업소진에도 매우 중요한 변인이기에, 외로움-소진 집단의 경우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는 개입방안을 모색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집단별 특성을 통해 자아탄력성이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 수준 모두에 있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자아탄력성이 성격이나 기질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이지만 환경적 요인

www.kci.go.kr

에 의해서도 변화가 가능하고(성진숙, 최현주, 2018), 단기간이 아닌 부모 혹은 교사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기반으로 지지와 격려, 인정을 통해 서서히 향상된다는 점(김영혜, 2009)을 고려할 때,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와 촉진적인 의사소통 및 공감은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사 연수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톨이 성향 및 학업소진의 증상은 멍하게 앉아있기, 딴 짓 하기, 잠자기 등과 같이 보다 조용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외현화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정서적,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내현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차리고 개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부적응적 행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전환(이혜영, 손홍숙, 김일혁, 김미숙, 2012)이 요구되며, 학생들의 내현화 문제를 스크리닝하고 조기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학교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흔한 문제들로 학교적응을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의 함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외로움과 학업소진의 문제를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외로움 수준과 학업소진 수준을 중심으로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하여 각 집단 별 특성을 이해하고 구별되는 집단의 특성을 위한 개입방안들과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남 소재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를 중학생 대상 모두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톨이 성향 수준과 학업소진 수준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유사한 집단유형 및 특성들이 도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외톨이 성향 및 학업소진의 각 총합을 중심으로 수준을 분류하여 집단유형을 살펴보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두 변인 하위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하여 좀 더 집단별 특성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개인내적 및 환경적 개입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자아탄력성 측정도구의 하위요인인 자아탄력성 요인과 자아취약성 요인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두 요인 간의 관계 및 타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구형모, 황순택 (2001). CCQ 자아탄력척도와 자아통제척도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345-358.

김경애, 선혜연, 조은주, 임종헌, 양희준, 안해정, 한은정, 박철희, 이종아 (2017).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II) (연구보고 PR 2017-14), 한국교육개발원.

김은정 (2001). 친구없는 청소년에 대한 평가: 외톨이 질문지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회지: 임상, 20(3), 535-549.

김민애, 이상민, 신효정, 박양민, 이자영 (2010). 과중한 학업요구와 학업소진과의 관계: 통제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www.kci.go.kr

지: 학교, 7(1), 69-84.

김순복 (2010). 교우관계증진 집단상담이 외톨이 초등학생의 교우관계,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심리행동연구, 3(2), 1-25.

김승희 (2013).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 및 안녕감의 차이.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혜 (200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검증. 청소년학연구, 16(1), 25-42.

김정현, 마연연, 고민선 (2013). 중국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 학업소진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5(2), 129-146.

김홍희 한기순 (2015). 영재 청소년의 학업소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탄력성의 매개 및 조절 효과. 영재교육연구, 25(3), p421-437.

모상현, 김형주 (201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2013 한국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 브리프, 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경숙 (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7(5), 143-157.

박가화, 이지민 (2018). 과잉양육행동과 또래소외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의존경향성의 매개효과 및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6(2), 145-156.

박선영, 김광웅 (2008). 아동의 외톨이 성향과 게임중독 위험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839-861.

박시연 (2016).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광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효정, 김보영, 이민영, 노현경, 김근화, 이상민 (2011). 중학생의 정신건강과 학업소진의 단기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2), 133-152.

서미옥 (2018). 중고등학생의 학업소진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32(1), 53-78.

성진숙, 최현주 (2018). 교사소진과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소진 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다층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1), 27-50.

손병덕 (2016).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정과 또래소외경험, 종교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4), 131-148.

손정우 (2002). 외톨이 혹은 왕따 상태인 청소년 정신과 환자와 비외톨이 환자의 문제행동 및 어머니의 양육 태도의 차이.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3(2), 177-188.

유지현 (2013). 학업적 정서조절, 학습전략,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의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27(3), 715-738.

유정이, 임지영 (2003). 외톨이 초등학생의 심리적 특성 연구. 초등교육연구, 16(1), 365-378.

윤명숙, 손행숙 (2011).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41-164.

이규미 (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www.kci.go.kr

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 (2001).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47-162.

이명선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외로움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질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민 (2012).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소진 진행과정 및 경로분석. 서울: 집문당.

이시형, 김은정, 김미영, 김진영 (2000).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부적응.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이영복, 이상민, 이자영 (2009). 한국형 학업소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학연구, 15(3), 59-78.

이혜영, 손홍숙, 김일혁, 김미숙 (2012). 학생의 학교 부적응 진단과 대책(Ⅰ).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조주연, 김명소 (2013). 초등학생의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관한 남녀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4), 477-497.

정문정, 이상민, 최현주 (2016).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4(1), 1-23

정선아, 이고운 (2016). 국내 아동청소년 자아탄력성 중재의 효과 연구: 메타분석. 정신간호학회지, 25(3), 347-248.

정옥신, 이재용 (2017). 중학생의 또래관계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역동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상담학연구, 18(4), 317-341.

최 옥, 이우송 (2014). 청소년의 학업소진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2(9), 455-463.

최외선, 장영숙 (2000). 초등학생의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KFD에 의한 가족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미술치료학회, 6(1), 147-173.

최창용, 이주연, 신유미 (2015). 중학생의 또래 소외감과 이원적 자기존중감 간의 상호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6(3), 247-276.

한국심리학회[웹사이트] (2016. 12.). URL: http://www.koreanpsychology.or.kr/aboutkpa/article.asp?page=4

Akaike, H. (1987). Factor analysis and AIC. *Psychometrika, 52*, 317-332.

Al Khatib, S. (2012). Exploring the relationship among loneliness, self-esteem, self-efficacy and gender in United Arab Emirates college students.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8*(1), 159-181.

Batigun, A. D. (2005). Suicide Probability: An Assessment Terms of Reasons for Living, Hopelessness and Loneliness. *Turkish Journal of Psychiatry, 16*(1), 29-39.

Benner, A. D. (2011). Latino adolescents' loneliness, academic performance, and the buffering nature of friend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5), 556-567.

Berndt, T. J., & Keefe, J. (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5), 1312-1329.

Block, J. H., & Block, H.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4,* 39-101. Hillsdale, NJ: Erlbaum.

Dodeen, H., & Hassan, A. (2019). Assessing Loneliness in UAE Populations: the Relationship with Age, Gender, Marital Status, and Academic Performance. *Applied Research in*

www.kci.go.kr

Quality of Life, Dec. 02. https://doi.org/10.1007/s11482-019-09783-4

Freudenberger, H. J. (1974), Staff burnout. *Journal of Social Issue, 3*(1), 159-165.

Kiuru, N., Aunola, K., Nurmi, J.-E., Leskinen, E., & Salmela-Aro, K. (2008). Expanding education and improving odds? Participation in higher education in Finland in the 1980s and 1990s". *Act a Sosiologica, 44*(1), 71-181.

Knox, D. K., Vail-Smith, K., & Zusman, M. (2007). The lonely college male. *International Journal of Men's Health, 6*(3), 273-279.

Lee, J. H., Nam, S. K., Kim, A. R., Kim, B. R., Lee, M. Y., & Lee, S. M. (2013). Resilience: a meta-analytic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91*, 269-279.

Lin, S-H., & Huang, Y-C. (2012).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loneliness and learning burnout. *Active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13*(3), 231-243.

Lo, Y., Mendell, N., & Rubin, D.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 767-778.

Mahon, N. E., Yarcheski, A., Yarcheski, T. J., Cannella, B. L., & Hanks, M. M. (2006). A meta-analytic study of predictors for loneliness during adolescence. *Nursing Research, 55*, 308-315.

McCrae, J. S., Champman, M. V., & Christ, S. L. (2006) Profile of children investigated for sexual abuse: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4), 468-481.

McLachlan, G.,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John Wiley.

Meier, S. F., & Schmeck, R. R. (1985). The burnout collage student: A descriptive profile. *Journal of Collage Student Personnel, 26*(1), 63-69.

Muthén, B. O.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In D. Kaplan (E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 (pp. 345-368). Thousand Oaks, CA: Sage.

Muthén, L. K., & Muthén, B. O. (2006). *Mplus,*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Schaufeli, W. B., Martinez, I., Marques-Pinto, A., Salanova, M., & Baker, A. B.,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 A cross 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464-481.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3), 333-343

Simon-Morton, B., G., & Crump, A., D. (2003). Association of parental involvement and social competence with school adjustment and engagement among six graders. *Journal of School Health, 73*(3), 121-126.

Stoliker, B. E., & Lafreniere, K. D. (2015). The influence of perceived stress, loneliness, and learning burnout on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 *College students Journal, 49*(1), 146-160.

Thomopoulou, I., Thomopoulou, D., & Koutsouki, D. (2010). The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and loneliness between elderly people. *Biology of Exercise, 6*(2), 13-28.

von Eye A, Bergman LR (2003). Research

www.kci.go.kr

strategies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imensional identity and the person-oriented approac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 553-580.

Wiseman, H., Guttfreund, D. G., & Lurie, I. (1995). Gender differences in loneliness and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seeking counselling.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23*(2), 231-243.

원 고 접 수 일 : 2021. 02. 16.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4. 05.
최종게재결정일 : 2021. 04. 22.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21, Vol. 18, No. 1, 99-119

Differences in Latent Profile Analyses of Middle School Students' Loner Tendencies and Academic Burnout According to Gender, Ego-resilience, and School Adaptation

Suk Kyung Nam[1)] Hyunju Choi[2)]

[1)]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2)]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Ulsan Assistant Professo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profiles of loners and those likely to suffer academic burnou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determine whether these profiles differed by gender, ego-resilience, ego-weakness, and school adaptatio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70 middle school students in Kyung-n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four main profiles of students related to their likelihood of being loners and suffering academic burnout: the adaptive group, which had a low tendency towards both loneliness and academic burnout; the burnout group, which had a high tendency towards academic burnout but a low tendency towards loneliness; the lonely group, which had a high tendency towards loneliness but a low tendency towards academic burnout; and the loner-burnout group, which had high tendencies towards both loneliness and academic burnout. Cross-tabulation and one-way ANOVA analyses of the four groups showed that the loneliness-burnout group had a statistically lower level of ego-resilience, higher level of ego-weakness, and lower level of school adaptation than the other groups.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middle school students and present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loner tendency, academic burnout, ego-resilience, school adjustment, Latent Profile Analysis

www.kci.go.kr